

????: 인류 육체는...나약하다....

○○○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마침내 진정으로 스스로를 조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인간은 사지를 움직여 일과 산책과 놀이에서 최고의 정밀함과 목적성 및 경제성을 얻어냄으로써 자신의 과업이 진실한 미를 성취하도록 할 것이다. 인간은 호흡, 혈액순환, 소화, 생식과 같은 자신의 유기체에 있어서, 첫째로는 반의식적이고 그 다음에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무의식적인 과정을 이성과 의지로 통제할 것이다. 심지어는 순전히 생리적인 삶조차도 집단적인 시험에 종속될 것이다. 고정화된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는 또다시 급격한 변화의 상태를 겪게 될 것이

며, 인위적인 선택과 심신의 훈련에 의해 가장 복잡한 방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진화와 일치한다. 처음에 인간은 산업과 이념의 백치상태였으나, 점차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 야만적인 과정을 청산하고 종교에서 벗어난다. 이후 인간은 민주주의와 합리주의적 의회에 의해 전제주의와 계급을 타파하고, 다음에는 명확하고 개방적 소비에트 독재체제로서 전제와 계급을 전복함으로써 정치에서 무의식적인 요소를 제거해냈다. 그같은 무의식적 요소들은 경제적 관계에서 가장 심하게 뿌리박혀 있었으나, 인간은 경제생활의 사회주의적 조직으로 그것들을 몰아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생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특성은 무의식적, 자연본능적, 하층토적인 것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숨겨져 있게 된다. 그것은 연구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주도력이라는 노력을 통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확신에 빠진 것일까? 인간은 유전과 맹목적인 자용도태의 그 암담한 법칙 앞에 수치스럽게 복종하기 위해서 신과 군주와 자본 앞에 네발로 기는 것을 멈추었던 것은 아니다. 해방된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위협에 대한 유기체의 합리적인 반응으로 줄이기 위해, 신체 기관의 작업에 있어서 보다 큰 평정을 획득하고 신체 조직의 보다 적절한 발달과 소모를 얻고자 할 것이다. 인간의 극도의 해부학적·생리학적 부조화, 즉 신체 기관과 조직의 발달과 소모에 있어서의 극도의 불균형은, 인간의 삶을 사후 세계에 대한 어리석고 굴욕적인 환상들을 키우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죽음에 대해 찌들고 뒤틀린 히스테리컬한 공포로 몰들게 한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본능을 의식의 높이로 올리고, 본능을 투명하게 회색시키며, 숨겨진 잠재 속으로 의지의 전선을 확장시키고, 그리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자신을 승화시키며, 보다 높은 사회적·생물학적인 유형, 즉 초인을 창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인간이 도달할 자제(self-government)의 정도나 그의 기술이

도달할 수준을 예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건설과 심신의 자기 교육은 한 과정의 두 가지 측면의 될 것이다. 문학, 희곡, 미술, 음악, 건축 등 모든 예술은 이 과정에 아름다운 형태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산주의적 인간의 문화적 건설과 자기 교육을 담을 껍질은 동시대 예술의 중요한 모든 요소들을 절정에 이를 만큼 발달시킬 것이다. 인간은 무한히 강하고 현명하며 교묘해질 것이다. 육체는 보다 조화를 이루고, 행동은 보다 부드럽고, 목소리는 보다 음악적이 될 것이다. 삶의 형태 역시 극적이리만큼 역동적이 될 것이며 그리하여 보편적 인간 유형은 아리스토텔레스, 피테, 마르크스와 같은 인물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산동성이 위로 새로운 정상이 우뚝 솟아날 것이다.

(위: 트로츠키 '문학과 혁명' 중)

(아래: 트로츠키 '10월 혁명을 옹호하며' 중 '인류의 미래')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종착역은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인간은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른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의 최후의 최고의 대표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는 결코 완성되지 못했다. 생물적으로는 너무 일찍 태어나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하고 생각도 유약하며 새로운 유기적 균형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류는 두 번 이상 마치 산맥의 정상처럼 동시대인 위에 우뚝 솟은 생각과 행동의 거인들을 배출해냈다. 인류는 아리스토텔레스, 셰익스피어, 다윈, 베토벤, 피테, 말스, 에디슨, 레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거인들은 왜 이리도 드물게 배출되었는가? 무엇보다도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중간 계급과 상층 계급 출신이기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민의 억압받은 심연 깊숙이 천재성의 불꽃은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지도 못하고 질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창조, 개발, 교육 과정들은 이론과 실천에 의해 인식되고 의식과 의지에 종속되지 않은 채 우연에 의해 지배되어왔기 때문이다.

인류학, 생물학, 생리학, 심리학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게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축적해 놓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마술 같은 손으로 창조된 정신분석학은 시적으로 "영혼"이라고 부르는 우물의 뚜껑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무엇을 밝혔는가? 우리의 의식은 암흑 같은 심령의 힘이 작용해서 이루어진 아주 하잘 것 없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식한 잠수부들이 태양의 바닥까지 내려가 신비로운 물고기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는다. 인간의 사고는 자신의 심령의 근원의 바닥까지 내려가 영혼의 가장 신비로운 원동력을 규명하여 이것을 이성과 의지에 중

속시켜야한다.

일단 자기가 창조한 사회의 무질서한 힘을 정복한 후,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화학자의 절굿공이와 증류기의 실험 대상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최초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실험 재료 또는 기껏해야 신체적 심리적 반(半)완성품으로 간주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필요의 영역에서 자유의 영역으로의 비약이 될 것이다. 조화의 부족과 온갖 모순에 시달리는 지금의 인간은 스스로 새로운 그리고 더 행복한 족속이 될 길을 열어 재길 것이다.